

#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오늘도 새벽 두 시에 일어났어. 피곤하지. 당연히 피곤한데 침대에서 시름시름 앓다가도 부엌에만 가면, 재래시장에만 가면 힘이 펴질 난다니까.”

끊임없이 들어오는 작품도 마다하고 tvN 예능 ‘수미네 반찬’에 ‘올인’하며 연예계 소문난 집밥 실력을 발휘 중인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68)는 이렇게 말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찰진’ 욕을 구사하는 모습이 익숙한 김수미는 ‘수미네 반찬’에서만큼은 엄마 모습 그 자체다. 실제로 그는 요리할 때마다 일찍 먼저 보낸 어머니를 그리다고 했다.

“내게 가장 행복한 추억이 연기대상 타고, 다이아몬드 샀던 게 아니라 어릴 적 시골집 평상에서 감나무, 꽃, 장독대 보면서 엄마가 해주던 밥 먹었던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부엌에서 들리던 도마질 소리, 강된장 끓는 냄새...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엄마 음식이 늘 같이 생각났죠. 그래서 그 요리를 따라 하다 보니 이렇게 판이 커졌어. (웃음)”

할머니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정량화한 레시피 없이 “간장 요란치, 참기름 확확” 하면서 요리하는 모습에 주부는 물론 남녀노소가 ‘수미네 반찬’을 통해 요리에 친숙해진다. 특히 갈비찜, 잡채, 모듬전 등 명절 요리 레시피를 ‘대방출’한 추석특집은 시청률 6% (닐슨코리아 유료가구)를 넘기며 사랑받기도 했다.

김수미는 “전을 몇 시간 부치고 있자니 허리가 너무 아프기에 시청자들에게 ‘그냥 사 먹으시라’고 했다”며 “사실 나도 가끔 반찬집에 가서 사 먹는데 ‘수미네 반찬’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못가겠더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요리는 스트레스받으면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찍 보면 레시피 전수가 끝난 것 같

김수미, tvN ‘수미네 반찬’ 서 집밥 실력 발휘  
갈비찜·모듬전 등 명절 특집·일본 특집 인기



지만 ‘수미네 반찬’은 손이 많이 가는 프로그램이다. 일단 매주 메뉴 선정부터가 김수미 몫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을 따져 메뉴를 정한다”며 “절제 식재료를 주로 고르고, 재료가

너무 비싼 것은 하지 않는다. 주부들이 저녁마다 반찬 스트레스를 받는데 메뉴를 알려주니 우리 프로그램이 사랑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력이 바닥날 법도 한데 그는 최소한 올해는 ‘수미네 반찬’에만 몰두하

겠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배우 생활을 오래 했어도 ‘연기 오래 볼 수 있게 건강해달라’는 말을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 ‘수미네 반찬’ 하면서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프로그램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고맙죠. 힘들게 데까지 ‘수미네 반찬’ 해줄 거예요. 선생님, 갈비찜 성공해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먹었어요’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더라.”

처음부터 김수미 외에는 섭외할 주인 공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문태주 PD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김수미의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거듭했다.

그는 “덕에 가면 항상 뭔가 하고 계신다. 시장에 가서도 항상 전화를 주신다. 심지어 녹화할 때도 반찬을 싸오셔서 나눠주신다. 이렇게 엄마 생각이 나게 해주시니 프로그램도 사랑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PD는 김수미가 어머니를 그리며 만들어놓은 레시피 책이 조만간 정식 도서로도 발간될 예정인데, 책으로도 만들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이기에 프로그램이 갈 길도 멀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평받은 일본 특집에 이어 다른 나라 교포들을 만나기 위한 기획도 구상 중이다.

“외국 교포들에게 집반찬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기획은 첫방송 전부터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계속 ‘나가야 한다’고 하셨죠. 일본 특집 덕분에 교포들에게도 ‘수미네 반찬’을 많이 알렸고, 이후에 시청률도 더 오른 것 같아요.”(문 PD)

김수미는 “꼭박 나를 동안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병이 다 났는데도, 막 퍼주게 됐다. 외국 가서 모든 게 안 맞고 서러운데 엄마가 해주던 음식 입에 넣으니 치유된다고들 했다. 정말로. 그말에 모든 피곤이 다 풀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영화 ‘안시성’ 400만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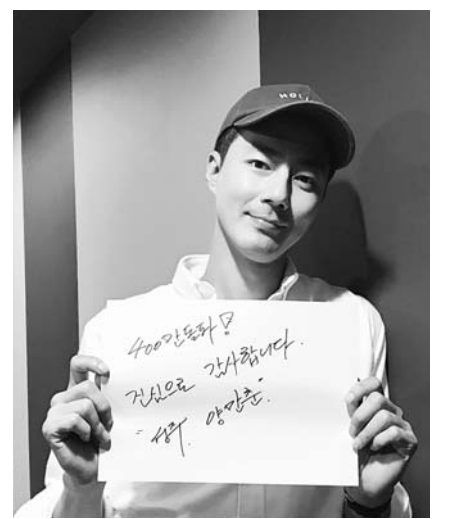
11일째 박스오피스 1위

고구려와 당의 안시성 전투를 다룬 영화 ‘안시성’이 개봉 11일째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안시성’ 홍보대행사는 지난달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 기준 누적 관객 수가 400만 21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시성은 지난 19일 개봉 이후 11일째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으며, 개봉 5일째 100만, 6일째 200만, 8일째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안시성에 출연한 배우 조인성·남주혁·박성웅 등은 ‘400만 진심으로



‘안시성’ 400만 돌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배우 조인성.

감사합니다’ 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화는 안시성주양만춘(조인성 분)이 5,000 군사로 20만에 달하는 당의 대군을 막아낸 안시성 전투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으로 웅장한 전투장면이 백미로 꼽힌다.



## KBS 다큐멘터리 ‘순례’ 시리즈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내달 개봉

위로 전하는 힐링 에세이

KBS는 다큐멘터리 ‘순례’ 시리즈 중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를 오는 11월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포스터와 함께 공개된 ‘소녀의 여름’ 티저 예고편은 왕모와 그의 귀여운 동생들의 한때를 담았다. 푸르른 들panse에 둘러앉은 왕모와 두 남동생이 ‘씨떡바’라 불리는 풀잎 열매를 먹으며 장난치며 해맑은 웃음을 짓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절로 자아낸다. 김한석 PD가 연출한 이 다큐는 가난



1968년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마틴 발린(맨 왼쪽).

## 마틴 발린 병원 이송 중 별세...사인 불명

미국 록 밴드 ‘제퍼슨 에어플레인’ 창립 멤버

미국의 전설적 록 밴드 ‘제퍼슨 에어플레인’ (Jefferson Airplane)의 창립멤버로 앨범 제작에서 핵심 역할을 한 마틴 발린이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보컬리스트이자 기타리스트인 발린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탬파에서 병원 이송 도중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발린은 196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기타리스트 폴 캔터와 함께 사이키델릭 록 밴드 제퍼슨 에어플레인을 결성했다.

이 밴드는 1966년에 데뷔 앨범을 냈으며 이듬해 다른 리드 보컬리스트 그레이스 슬릭이 합류한 뒤 전국적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1969년 우드스톡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섬바디 투 러브’ (Somebody to Love), ‘화이트 래빗’ (White Rabbit) 같은 노래로 유명하며, 1996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발린은 1970년대 중반 제퍼슨 에어플레인이 진화한 ‘제퍼슨 스타십’ (Jefferson Starship)에도 참여했다.

## 지역 상생 위한 ‘지역독립선언’ 오늘 첫 방송

MBC 16개사 공동 기획·제작...매주 월요일 편성

지역MBC 16개사가 공동기획하고 제작한 ‘지역독립선언’이 1일부터 5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지역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인 이 프로그램은 충청권(세종시), 전라권(광주), 경상권(부산), 강원권(평창) 등 4개의 지역 거점을 순회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화두를 토론과 쇼의 형식으로 담았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자치분권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자치분권이 일상의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삶의 변화도 보여줄 예정이다.

1편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무엇인가?’에서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지역에 주어졌을 때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본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변화과정을 통해 ‘자치분권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2편 ‘문화자치,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는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문화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인 터라켄 주민연극제 등을 통해 ‘자치분권시대’를 일상의 무대로 끌어들이는 문화자치와 분권을 이야기한다.

3편 ‘자치와 분권, 지방도 잘살 수 있는가?’ 편에서는 쇠락의 길을 걷던 리옹이 프랑스 제2의 도시가 된 원인을 통해 지구상 최대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간 균형을 찾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4편 ‘교육자치, 무엇을 바꿔야 하는

가?’는 강원도 화천과 태백에서 새로운 실험을 통해 일어난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과 경쟁력을 갖춘 교육자치분권시대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마지막 시간에는 1편부터 4편까지 토론쇼의 과정을 기록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이슈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 ‘지역-자치-분권-새로운 미래’가 방송된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광주MBC 강명근 편성기획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가 참여해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될 것이다”며 “또한 지역의 공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 ‘고등래퍼’ 엔자민, 정식 데뷔

싱글음반 ‘트래블 온 마이 마인드’ 발매

보였지만 자신의 포부를 조리 있게 펼쳐냈다.

엔자민은 음악을 하게 된 게 ‘순리’였다고 했다. 체대 입시를 준비했지만 다리 십자인대가 끊어지며 자연스레 취미였던 음악에 전념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며 힙합에 눈을 떴다. 예명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에서 따온 것이다.

더블 싱글의 수록곡 ‘플라시보’에는 엔자민의 이런 생각이 잘 묻어났다. 김하은, 빈첸, 웨스터B, 영기, 메이어 수, 방재민, 조웅까지 8명의 또래가 뭉친 크루 ‘키프클랜’이 리더인

엔자민의 데뷔를 축하하며 함께 곡을 썼다.

“돌아 보여 언제나 문제가 컨셉을 Ah”, ‘약 얘기 하지 마약 얘기 안 하면 약 얘기밖에 난 할 얘기 없지’ 등 가사는 마약과 폭력을 미화하는 일부 래퍼들을 정면에서 비판한다.

“최근 힙합계에서 약에 관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걸 미화하는 가사들이 많은데, 그게 자랑인가요? 전혀 멋있지 않아요. 의미 없고 유지해 보여요. 젊은 세대로서 꼬집고 싶었어요.”

타이틀곡 ‘올라’ (HOLA)는 지난 8월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쓴 곡이다. 소속사 선배인

범키가 작사·작곡에 참여해 매끄러운 라틴 리듬을 뽑아냈다.

그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롤모델로는 래퍼 빈지노를 꼽으면서 “힙합의 스펙트럼을 넓힌 선배”라고 설명했다.

정식 데뷔에 앞서 “차가운 프로의 세계에 입문한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왕 음악하는 거, 저로 인해 힙합계가 바뀌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 자신을 바꾸는 것도 힘든데, 나를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각오 단단히 하고 있다”고 당차게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니까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고 당부했다.



엔넷 ‘고등래퍼’에 출연해 주목받았던 래퍼 엔자민(본명 김윤호·19)이 정식 데뷔한다.

힙합 레이블 브랜뉴뮤직과 계약을 맺고 지난달 28일 오후 6시 싱글음반 ‘트래블 온 마이 마인드’ (Travel on my mind)를 낸 그를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만났다. 얼굴은 옛때